**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 복음, 15차,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의무와 특권,
루가복음 9:51-10:24**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예수님을 따르기, 의무와 특권, 루가복음 9:51-10:24입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Biblica eLearning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몇 가지를 다룰 수 있었고, 우리는 유아기 이야기에서 갈릴리에서의 예수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누가의 기록에서 예수가 갈릴리에서 어떻게 여행하고 그 길에서 다양한 사역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것이고, 복음서 이야기는 그가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묻힐 예루살렘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제 사역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우리는 9장 마지막 부분인 51절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 1시간 강의에서 10장의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환에서 몇 가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예수의 갈릴리 사역에서 단절된 부분은 일부 학자들이 일찍, 10절에서 우리가 일부 비유를 살펴보고 특정 장소에 위치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학자들과 저를 발견했습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단절이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므로 대신 9장 51절의 여행 이야기나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과 누가가 지리를 따르는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는 유대에서 왔고 나중에 갈릴리에 오셨을 때 갈릴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나중에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교회와 함께 시작되었고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그곳에서 나머지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세션은 여정의 명확한 마커를 보여주며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5장 51절에서 55절을 살펴보면 여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명확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 38절, 11장 53절, 13장 22절과 33절, 17장 11절, 18절, 그리고 19장 27절까지 가면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여정임을 보여주는 특징과 마커를 볼 수 있습니다.

루크는 이 서사에서 예수의 궁극적인 목적지 또는 목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며, 그곳에서 메시아적 사명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완성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할 것입니다. 이는 그가 제자들에게 언급한 핵심적인 것 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룰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따르는 것, 의무와 특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가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려고 하는 모습과 이 마을 중 일부가 예수가 예루살렘에 눈을 돌렸다는 것을 알고 그를 거부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으로서 그것은 그 자체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만이 제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12명 대신 70명이나 72명을 보내어 사역을 하게 하시고 보고서를 가져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특정 세션의 마지막에 선교사들의 귀환, 선교사들의 보고서,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예수의 후속적인 대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잠깐 사마리아 마을과 예수의 사역에 대한 거부로 넘어가겠습니다.

51절부터 5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를 위해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사람들을 보내어 그가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땅을 준비하게 하신 예수의 사역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마리아는 지나가는 유대인에게 그다지 우호적인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시리아 유배 당시 사마리아인은 혼혈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유대인은 뒤에 남겨졌다고 믿어집니다. 그들은 혼혈로 결혼했고 혼혈 유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머지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 유배되어 있는 동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나중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를 그룹, 사회 또는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이들은 혼혈이지만 종교적 신념은 유대인이 제2성전 유대교에서 순수 유대교로 여겼던 것의 왜곡된 버전 또는 왜곡된 버전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산,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예배의 중심지를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장소인 그리심 산의 중요성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 원한다면 이러한 적대감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서면된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1세기, 제2 성전 유대교에서 유대인인 예수는 모든 유대인 제자들과 함께 요르단 동쪽으로 건너 사마리아 영토를 떠나 요르단을 건너 예리코와 다른 곳으로 가는 전형적인 경로 대신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반응을 발견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런 다음 최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 유대 종교 생활의 중심지로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로 그를 거부합니다. 저는 이전 강의에서 제가 제자들의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그것이 전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 안 돼, 알다시피, 그들은 우리를 거부합니다. 스승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그들을 소멸시키길 원하시나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게 우리를 생각나게 해요. 우리는 인간이고 사도들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가끔씩 그들은 화를 내요.

그들은 건너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합니다. 사마리아 마을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여기서 관찰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태도는 어떤 메시아적 믿음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로 홍보하거나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신성한 장소로 여겼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반응을 가져옵니다. 반응은 제자들이 복수와 보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복수와 보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수와 보복을 원합니다. 믿으시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방문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고 시도하면서 경험하는 단순한 거부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앞서 언급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오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적대감이 끓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거부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최악의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학자는 이 특정 설명과 관련하여 크래독이 말했듯이, 예수의 세례가 나사렛에서 거부로 이어진 것처럼, 이제 변형과 사건이 세례와 평행을 이루고 사마리아에서 거부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사마리아인에게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다음 마을로 빨리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름이 없는 이 마을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가 이야기의 57절로 넘어간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실 곳은 제자들이 이미 무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낯선 땅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반드시 최선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역의 거대한 측면이 펼쳐질 예루살렘에 눈을 돌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는 그들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는 집이 있으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묻게 하세요. 그러나 당신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세요. 또 다른 사람은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자도의 준비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두 번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문화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친족 관계와 가족 관계를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고려하는 방법에 도입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면, 비용을 세어 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비용을 세어 보라고. 여우는 굴이 있고 새는 집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둘 곳이 없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안정을 찾고 가족적인 환경을 즐길 수 있는 확립된 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는 숙박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양들 사이에서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노숙이 그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그의 사역이 순회 사역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길을 많이 다닐 것입니다.

인자는 한곳에 정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착수하는 왕국의 사업에는 많은 여행과 많은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그를 따르는 사도들, 그리고 이 특정 기록에서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그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긴 사역 여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집에서 그리 가깝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에게도 갈릴리에서 모든 일이 일어날 때는 집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있다면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있던 곳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들이 반대편, 나사렛에 있다면, 그곳이 바로 예수가 자란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 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또한 그의 제자가 되는 것과 관련된 높은 부름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묻게 하라라고 말했을 때, 그는 실제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묻어주는 왕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매우 간절하고 집착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왕권에 매우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특정 기록을 읽을 때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여, 저는 그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주는 가장 큰 영예 중 하나가 노년에 그들을 돕고 돌보는 것이 되는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그들에게 적절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것은 다소 무책임한 일이고, 사회는 그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길 것이고, 이 문화권에서 부모, 특히 그들이 죽었을 때 부모를 묻지 않으면 사회적 평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책임져야 할 죽은 자를 묻을 시간만 주어진다면 당신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요, 하나님의 왕국은 왕권의 의무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권을 그 자체로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권의 의무보다 왕국 사역을 우선시하십니다. 제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의무를 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남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을 묻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에서 당신의 지위, 심지어 가족 내에서의 당신의 위치에 관련된 책임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염려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질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는 제자도를 부르시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따르는 것을 다시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 아니, 아니,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속담을 아십니까? 아시죠, 쟁기에 손을 넣은 사람은 포기하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속담을요.

계속 가야 해. 따라갈 준비가 되었다면, 오, 지금 널 봤어, 하지만 돌아갈 거야라고 말하지 마. 아니, 아니, 아니.

당신은 방금 당신의 초점과 우선순위를 유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이것을 사람이 주목할 만한 중요한 수준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하워드 마셜이 쓴 것처럼, 죽은 자의 장벽은 유대 사회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종교적 의무였으며, 심지어 율법에 대한 공부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체를 만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제들은 친척의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매우 단순한 언어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떠나가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묻어라. 와. 참 많은 일이네요.

그리고 바로 그 후에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여기시고 70명이나 72명을 부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 기록을 읽어 봅시다. 그러므로 추수의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가거라. 보라, 내가 너희를 이리들 가운데로 어린 양처럼 보낸다. 돈주머니도 배낭도 샌들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평화의 아들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 평화가 그에게 머물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같은 집에 머물러 그들이 제공하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은 그의 삯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집집마다 다니지 마십시오.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이 당신을 영접하면, 당신 앞에 놓인 것은 무엇이든 먹으십시오. 이 화면에서 나가기 전에, 여기 텍스트에 있는 몇 가지 사항에 주의를 환기하고 싶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예수께서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앞서 12명에게 말씀하신 것에 샌들을 더합니다. 돈주머니와 배낭에서 그는 이제 샌들을 더 가지고 갈 필요조차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는 4절의 마지막에 또 다른 말을 덧붙여,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그것을 원할 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세요. 그는 그들을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호적인 지형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이 초점을 맞추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갈릴리에 있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묘사한 대로 계속합니다. 제공되는 것은 무엇이든 먹고 그런 모든 것.

그는 집집마다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을에 갈 때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 앞에 놓인 것은 무엇이든 머물고, 먹고, 마셔라. 그리고 루크는 계속합니다.

그 안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 그러나 너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거리로 가서 이르기를, 너희 마을의 우리 발에 붙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 버리리라 하라. 그러나 이것을 알아두어라 .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 소돔은 더 견딜 만하리라. 그러면 그 성읍도 견딜 만하리라. 그리심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티레 와 시돈 에서 행해졌더라면 , 그들은 오래 전에 회개하여 자루옷과 재에 앉았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 때에 티레 와 시돈은 너희보다 더 견딜 만할 것이다 .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여질 것인가? 네가 하데스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를 듣는 자는 나의 말을 듣는다. 그리고 너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거부한다.

그리고 나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70명이나 72명을 보내셨는데,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70 또는 72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70이 있습니까, 아니면 72가 있습니까? 원고에 대한 토론은 50-50입니다. 70을 사용하는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원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72를 제시하는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어떤 번역본에서, 특히 영어에서 어떤 사람들은 72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70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본을 70으로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70을 수용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떠나는 것에 대한 추가 설명도 있습니다 . 즉, 누가가 여기서 하는 일은 모세를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누가는 모세의 사역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세는 출애굽기 24장과 민수기 11장에서 보듯이 70명의 장로를 선택했습니다.

루크는 여기서 그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암시한다면, 그러면 모세의 사역처럼 70이 말이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받아들여서는 안 될까요? 글쎄요, 저는 둥근 숫자를 좋아하니 70으로 합시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72라고 말하는 사본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관점에 있어서 양쪽이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그분은 그들을 자신보다 앞서 있는 낯선 지역, 아직 가보지 않은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는 그들을 둘씩 보냅니다. 이것은 서로를 위한 상호 지원의 경우일 수도 있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전통에서처럼 증거하기 위해 둘이나 셋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둘씩 가면서 예수에게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참된 증인으로 오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급할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이 믿을 만할 것입니다. 그 문화적 환경에서 한 사람이 증언하면 필요한 신뢰성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 증거를 하려면 두세 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루크가 여기서 한 또 다른 일에 흥미를 느낍니다. 루크는 예수께서 추수는 많지만 일꾼은 적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70명이나 72명에게 재빨리 돌아서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역을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스승님께 기도하세요.

kurios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 여기서는 주님으로 번역합니다. 추수의 주인에게 기도하세요. 추수밭이 주인인 분에게 기도하세요.

그는 더 많은 노동자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목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작업은 엄청납니다. 그것을 완료하려면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루크에게 이 중요한 사명이 기도에 선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루크 예술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기독교 사역에 참여하고 루크의 지도를 따르고 싶다면 기도를 제외할 수 없다고 종종 말했습니다. 루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추수 자체에 대해서도, 추수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질 사람들은, 그들이 보내진다는 말을 듣기 전에, 기도에 동참하고 추수의 주님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추수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준비가 된 것은 익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가나에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토마토를 따러 갈 계절이 토마토 계절인 곳에서, 저는 청중의 얼굴을 보고, 제가 청중과 나누는 동안, 저는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수 마일에 걸쳐 토마토 농장을 가지고 계시고, 눈을 돌리면, 우리가 미국에서 먹는 토마토와 달리, 토마토는 녹색일 때 따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익을 때까지 살포하는 반면, 서아프리카의 그 지역에서는 토마토가 익어서 수확하기 전에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부들에게 말했고 청중들에게 말했듯이, 이 수 마일에 걸쳐 펼쳐진 농장에서 보이는 것은 모두 녹색과 빨간색, 빨간색, 녹색과 빨간색, 빨간색, 녹색과 빨간색뿐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수확량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었습니다. 수확할 일꾼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토마토 농부인 듯한 한 남자가 즉시 말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합니다. 일꾼 이 필요합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토마토가 썩을 것이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농부의 꿈입니다. 당신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망칠 여유가 없습니다.

토마토를 수확하려면 일꾼이 필요합니다. 토마토는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꾼이 적습니다.

수확을 시작하기 전에,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수확의 주님을 확인하세요. 그에게 더 많은 일꾼을 달라고 외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신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는 그들에게 가볍게 여행하라고 하신다.

그는 그들에게 겸손하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또한 그들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메시지가 여전히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들은 왕국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쳐야 합니다. 그들은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들의 캐릭터들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사람들의 집에 갈 때의 행동에 관한 한, 그들은 적절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접대 태도 면에서, 그들은 주인이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거부당하면, 그들은 또한 가장 강력한 형태의 거부를 보여야 합니다. 그들의 발에서 땅의 흙을 털어내고, 보여진 거부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거대한 사역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듯. 그는 이 제자들이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들은 어떤 마을에서 일어났듯이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이러한 거부에 연루된 도시들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메시지를 거부한 도시들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세기에서 소돔에서 일어난 일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가 여기서 소돔을 언급할 때, 그는 소돔의 죄가 동성애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실,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돔의 죄는 환대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대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70명이나 72명에게 그들이 나갈 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들을 거부하는 자들은 소돔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큰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다른 도시들과의 전쟁. 그리심, 티레 , 시돈, 그리고 다른 도시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내려진다. 심지어 가버나움도 그 몫을 받는다.

17절에 이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72 명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귀신들도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귀신들에 대한 것입니다. 귀신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라, 나는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권세를 밟을 권한을 주었고,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같은 시간에 그는 영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당신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당신의 은혜로운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넘겨 주셨고 ,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으며, 아들이 그를 나타내기로 택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그는 비밀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왕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선교사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몇 가지 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승리에 도취 되어 있었습니다 .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탄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기쁨이 있고, 예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축하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사탄의 타락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그린이 이 본문에 대해 말한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께서 소돔과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내릴 심판에 대해 언급하셨을 때, 그린은 이렇게 썼습니다. 소돔의 죄는 구약성경과 창세기 19장, 이사야 3장, 에스겔 16장과 같은 다른 유대교 본문에서 속담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일부 해석 본문은 소돔 사람들과 관련된 일반적인 성적 부도덕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필로에서 보는 것도 소돔의 죄를 동성애적 행위로 절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에 대한 유대인의 해석은 무엇보다도 소돔에서의 환대의 위반에 초점을 맞춥니다. 환대 안에서 소돔 사람들과의 연관성도 현재 맥락에서 고려됩니다.

그들은 예수, 예수의 대리인을 환영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마을의 상징이며, 따라서 신의 사절에 대한 환대를 거부한 죄를 지었습니다. 환대는 고대 유대 문화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오늘날 우리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기록하고 있는 문화와는 조금 다르지만, 보스니아에서 훌륭한 환대를 경험했습니다. 보스니아의 환대를 제외하고는, 큰 대화를 나누기 전에 앉아서 터키 카바, 터키 차, 진한 커피를 먹고 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보스니아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풍부한 문화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살았을 때 세상 다른 곳에서 태어났더라면 보스니아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보스니아를 좋아하고, 여러분의 환대도 좋습니다. 그리고 터키 카바, 여러분이 항상 공급해 주시는 터키 커피가 제가 지금 커피에 중독된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런 죄가 없습니다.

환대는 중요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 지역에서 일할 당시에는요. 환대는 제 고향에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손님에게 최고의 것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손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그들이 가진 유일한 파일을 죽일 것입니다. 가끔 저는 제 마을에 갈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제게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압니다.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시는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뵙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는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 그것을 보았고, 제가 중동 국가에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가면, 그들은 당신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당신은 가족이 있고, 그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환대는 큰 일입니다. 환대하지 않는 것은 매우, 매우 나쁜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이 나가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들을 거부하는 자들은 환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소돔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의 요점은 그쪽에 있습니다. 사탄이 타락한다는 생각에 대해 빨리 다루고 싶은데,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18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권세를 밟을 권한을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내가 사탄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학자들은 이에 대해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그것이 원시적 사건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예수의 삶과 사역에서 일어난 일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는 사탄이 쓰러진 원시 시대의 어느 시점 을 언급하고 있었을까요 ? 아니면 그 사건 전이나 그 사건 중에 그의 사역에서 전개되고 있던 사건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사탄은 왜 그렇게 적극적이었을까요? 만약 사탄이 실제로 쓰러졌다면, 예수의 사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따라서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맥락 밖에서는 이 의문에 답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는 72명이 돌아왔다고 했고, 왕국의 메시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는가에 대해 말하는 대신, 첫 번째,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보고할 준비가 된 유일한 것은,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있는 동안 사탄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특정 참조를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또는 두 가지를 조합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신화적 아이디어로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의 중요성을 표현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예,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쫓아낼 때, 저는 귀신이 당신의 귀신 쫓아내는 기간 동안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70명이나 72명이 나가 있는 동안 사역이 전개되면서 사탄의 궁극적인 몰락에 대한 예수의 환상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서양 국가에서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는 누가가 당신이 염두에 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활동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처럼, 악마도 활동하며 하나님의 일을 훼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70명이 나갔을 때, 그들은 악마들을 다룰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권세인 사탄이 무너졌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루크가 사탄을 처음 사용할 곳이 여기인 것 같고, 그는 여기 외에도 많은 곳에서 사탄을 사용할 겁니다. 악마의 활동을 감독하는 최고 권력자인 사탄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그 정당한 질문을 할 수 있죠.

만약 사탄이 그들이 나간 사이에 타락했다면, 왜 그는 그렇게 활동적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 살든지, 사탄은 그의 거점을 잃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진전되지 않았고, 왕국의 권능이 보이지 않았고, 왕국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사탄은 여전히 그의 거점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은 활동적이지만, 사탄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활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워드 마셜이 말했듯이, 엑소시즘은 사탄의 패배의 징조입니다 . 따라서 사탄의 종말론적 패배는 70인이 나가서 사탄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하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사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놀런이 쓴 것처럼, 그는 환상 속에서 사탄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 왕국의 다가올 승리를 보았고 이 승리를 자신의 과제로 확인했습니다. 이 환상은 엑소시즘, 치유, 그리고 하나님 왕국 선포의 그의 사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맥락에서, 동일한 미래의 구상이 예수의 제자들을 통한 사역의 확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엑소시즘도 왕국의 사역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린의 또 다른 인용문을 추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하고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누가는 예수를 예언적 환상을 본 것으로 묘사하고, 그 내용은 사탄의 미래이자 궁극적인 몰락이었고, 아마도 그가 12절과 14절에서 암시한 심판의 때에 예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일부 제2성전 유대교 문헌과 일치하지만, 이 루카 공동 시험에서 예수의 견해는 그 내용을 넘어선다. 사탄의 결정적인 몰락은 미래에 예상되지만, 그것은 이미 예수의 사명을 통해, 그리고 확장하여 그의 사절인 칠십인의 사역을 통해 명백해지고 있다. 그들은 당신의 이름으로 사탄이나 악마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예수는 그렇다고 말했다. 나는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주요 원수 중 하나인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세력을 처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은유적 표현일 수 있으며, 또한 영적 교만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았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 그들이 이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기록된 이름에 대한 생각은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알려져 있습니다. 생명책 또는 의의 행위에 대한 기록과 이름이 담긴 책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32-33절과 시편 69편 28절에서 이에 대한 암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생명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는 12장 23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생명책에 대해 읽습니다. 아이디어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선행을 기록하고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일흔 명이 그런 자리를 차지한 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우화를 좋아해서 그 패턴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일흔 두 명은 사역의 결과에 대해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기쁨은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그들이 기뻐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악마가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기록된 영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들은 말합니다. 오, 아니요, 우리는 이 악마들이 복종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에 복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 아니,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21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는 숨겨져 있고 드러난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는 지혜롭고 총명한 자에게는 큰 것들이 숨겨져 있지만, 유아에게는 공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 하지만 여기서는 무엇이 숨겨져 있고 공개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유아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는 사회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이해하기에 이상적인 인물입니다.

예수께서는 지위의 관습에 호소하시며, 사회의 지위 의식은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지혜의 척도는 지혜로운 자에게 계시되지 않고, 거기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도 계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 기준에 따른 지혜의 척도는 이 왕국 사역에서 보고 듣는 것을 감안할 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아의 위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참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 기대,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갔고, 크고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오히려 기뻐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기뻐할 좋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친구 여러분, 왕국 사역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왕국 사역은 우리가 이룬 일을 어떻게 자랑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왕국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참여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겸손함과 함께 제공되며, 그 과정에서 성취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는 제자나 종들은 하인, 말하자면 노예에 불과합니다. 종의 일과 기대되는 것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종은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제자도에서 사람들은 행동의 방향을 따르고, 공로가 합당한 사람에게 공을 돌리고, 사명을 위한 올바른 대의를 위해 기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록에서, 이 여정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어떤 마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거부하고, 심지어 그분이 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 제자로서 따르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이유로 그들이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묻어야 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작별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제자도를 우선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70명이나 72명을 보내러 오셨을 때, 누가는 그분이 그들을 둘씩 보내어 그분이 갈 곳으로 앞서 가게 하셨다는 것을 재빨리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을 막지 않는 한 재빨리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확의 주님이 익은 과일을 수확하는 데 도움을 줄 수확자들을 데려오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제가 드린 토마토 비유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가 그들을 보내어 그 사명을 위해 움직일 때, 우리는 그들이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걱정하는 것은 그들의 보고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바로잡으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기뻐할 좋은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태도를 취하고 충실한 추종자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영웅이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그를 위해 큰 일을 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첫째, 그는 우리를 따르라고 부릅니다. 따른다는 것은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충실하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신이 당신과 저를 도와 그분을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충실하게 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 학습 경험과 실제 생활에서의 우리의 행보 모두에서. 감사합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예수님을 따르기, 의무와 특권, 루가복음 9:51-10:24입니다.